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8. 3.(수) 조간 2022. 8. 2.(화) 11:00	배포 일시	2022. 8. 2.(화) 06:00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책임자	과 장 황상호 (044-200-598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0-5983)

구룡포항을 새로운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한다.

-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8.3.(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 내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숙박시설, 친수시설 등을 갖춘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를 8월 3일(수)부터 시작한다.

최근 구룡포항은 드라마 촬영, 지역 축제, 그리고 과메기, 대게, 오징어 등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구룡포항 방문객 수(연) : ('16)28만명 → ('17)29만명 → ('18)74만명 → ('19)96만명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된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번에 사업계획 공모를 실시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지는 구룡포읍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총 39,216㎡ 부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2월 28일(수)까지 해양수산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044-200-5983)로 문의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룡포항은 우수한 해양 경관과 풍부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룡포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숙박과 관광을 제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구룡포항 재개발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장기 방치중(‘06~)인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부지를 활용한 **지역 관광거점 조성**
- (위치/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 39천m²
- (사업기간) '23 ~ '28(사업자 제시에 따라 변경 가능)
- (토지이용(안)) 공공 45%*, 문화관광 55%(사업자 자율 제시 가능)
 - * 공공시설 확보 비중은 45%로 권고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제시
- (수립 방향) 주변 역사자원·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해양문화도심 랜드마크 개발 및 운영**
 - 단시간 머무르는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위해 **상부시설**(200실 이상 숙박시설, 500인 이상 회의실) **건설·운영을 의무화**

< 사업 방향 >



참고 2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전경



대상구역 전경(남측방향)

대상구역 전경(북측방향)



사업 대상부지



위치도

참고 3

구룡포항 인근 관광지(호미곶, 과메기문화관 등)

이름	특징	사진
호미곶	◦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관람할 수 있는 곳 ◦ 새천년기념관, 상생의 손, 해맞이 광장, 호미곶 등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과메기문화관 과메기축제	◦ 문화관 - 포항시의 대표적 힐링 먹거리인 과메기의 체계적인 연구, 품질관리 및 홍보를 위해 건립('17) ◦ 축제 - '199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1월 개최되며, 과메기 등 먹거리 판매,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일본인 가옥거리	◦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거류지로, 실제 일본인들이 살았던 가옥, 식당, 여관, 상점, 목욕탕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1920~30년대 당시의 생활 모습 등을 엿볼 수 있음. ◦ '여명의 눈동자', '동백꽃 필 무렵' 등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됨	
근대역사관	◦ 실제 일본 가옥을 복원하여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으며, 내부의 불단, 난방기구, 창살, 칸막이문, 장식기둥 등이 잘 남아있어 일본식 건물의 구조적·의장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